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우리 모두의 친구, 방탄소년단

사가 아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남다른 이유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기존 아이돌 그룹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1천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와 함께 ‘아미’(ARMY)라는 팬클럽을 통해 전 세계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어가는 것은 철저한 기획이나 마케팅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특히 해외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자국어로 번역해서 전파하는 등 ‘군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흔히 ‘칼군무’라고 부르는 화려한 퍼포먼스, 둘째, 에스앤에스(SNS)를 활용한 팬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셋째, 추상적인 사랑 노래나 무조건적인 현실 비판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가사 등이다.

이 중에서도 퍼포먼스는 전문 영역으로 제쳐 놓더라도, 에스앤에스 소통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쉽지 않은 영

역이다.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이동하는 중간에 틈틈이 자신들의 일상을 에스앤에스에 올리면서 팬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어 가는 것이다. 자신의 일상을 올리고, 그 행위를 꾸준히 반복한다. 그리고 그 일상은 자연스러운 행동과 몸짓, 언어가 담겨 있는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팬들은 우리러보기나 막연한 동경으로 바라보던 스타를 내 삶의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일종의 ‘친구’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일상성·지속성·친밀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담아냄으로써 아이돌 그룹과 팬클럽을 거의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하는 효과를 통해 아이돌 그룹을 관리했다면, 방탄소년단은 멤버들이 갖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노랫말에 있어서도 청년 세대의 현실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거나 아동 청소년 폭력 문제 등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등의 차별화된 지점을 보여 준다.

이 가수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누군가 만들어 준 노래를 단순히 기계처럼 부르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 내는 노래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진정성’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되었고 지금은

많이 잊혀진 단어라 하더라도,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진정성이 갖는 가치와 무게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아이돌 기획사의 ‘상품’이 아닌 동시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가수’가 되고자 했다. 상품에 의해 만들어지고 팔리지 않으면 바로 폐기처분된다. 아이돌 문화의 그들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성공 신화를 꿈꾸는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이 군대보다도 심한 합숙을 강요당하는 게 현실이다. 방탄소년단은 진짜 가수의 길을 선택했다. 자신들의 삶을 노래하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 갔다. 수 년 동안의 경험을 멤버 각자의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의 상호 조화를 완성시켰다. 경쟁과 성공이라는 단순한 지배적 논리가 아니라 배려·겸손·일상·고통 등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논리를 경험한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그러한 멤버 각자의 자율성과 능동성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어쩌면 방탄소년단(防彈少年團)은 이름에서 보여 주듯이, 지구상에서 온갖 전쟁을 치르는 이들을 대신해 수많은 총알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 누구나 사람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방탄소년단과 ‘친구’가 되었다.

종교칼럼

내 안의 적폐 청산



중현 황순 용암사 주지스님

나를 둘러싼 일상에도 존재하는 것이며, 나의 삶에 아주 뿌리 깊히 박혀 있다. 적폐란 사라져야 할 비공식적인 시스템이다.

물론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서 돌처럼 딱딱해진 때를 한두번의 비결로 말끔하게 청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의 기저에는 요충 정치권이 잘쓰는 ‘내로남불’이라는 사고방식이 도사리고 있다. 적폐 청산은 어디까지나 내가 아닌 남을 향한 때나 통용되는 표현이다. 그것은 나의 일상과는 무관하다. 보는 이에 따라 청산되어야 할 구습일지라도, 내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일상 속 적폐의 실상이며, 적폐의 일상이다.

춧불을 든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적폐 청산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벽은 바로 개개인 자신이다. 현실이 이러한 까닭에 나의 일상을 관통하는 적폐 청산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상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지 않은 적폐 청산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구호로 전락할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다. 정치권 차원의 적폐 청산, 사회 제

도적 차원의 적폐 청산, 일상의 영역에서의 삶에 아주 뿌리 깊히 박혀 있다. 적폐란 사라져야 할 비공식적인 시스템이다.

일즉일체다즉일(一切多即一切)이라 하였다. 개인의 삶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곧 이 사회의 적폐 청산이며, 이 사회의 적폐청산은 개인을 사회적으로 보다 성숙하게 한다. 정치권의 적폐 청산, 구태의연한 제도의 개선을 외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내 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다.

내 안의 적폐 청산은 곧 자기 성찰과 직결되며,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개개인의 자기 성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자기 성찰은 곧 자기 객관화이다. 자기 객관화는 불교적 지식과 수행에 따른 나를 객관적인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이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순간에 자기 객관화를 실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만 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 살을 빼려면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해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마음을 비워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런 말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말’일 뿐이다.

기고

교통 복지, 도시철도 2호선이 답이다



김준영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선별적 교통 복지는 교통 약자나 경제적 약자와 같이 특정 계층이 이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교통수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보편적 교통 복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영역이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대부분의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와 같이 정시성이 뛰어나고 신속하며, 대량 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노약자, 학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 인구 103만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지구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선별적 교통 복지와 보편적 교통 복지 중심에 서 있다.

광주시 역시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

교통 체계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신규 택지지가 개발되면서 과거에 비해 도시 외연이 2.5배 이상 확대되면서 시내버스만으로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대중교통 수요가 승용차로 전환되면서 교통 혼잡 구역 및 보편적 교통 복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영역이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대부분의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와 같이 정시성이 뛰어나고 신속하며, 대량 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노약자, 학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 인구 103만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지구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선별적 교통 복지와 보편적 교통 복지 중심에 서 있다.

광주시 역시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

된 바 있으며, 당시 시민과 시의회 의견은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공익과 교통 복지, 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였다.

최근 ‘2017 광주사회조사’에서 우리시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광주형 일차리 조성에 이어 2호선 건설이 두번째로 자리한 것도 이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장기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2호선 건설이 최근 일부 단체의 반대로 다시 쟁점화되는 상황인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한 발전적 대안이나 생산적 토론은 얼마든지 환영하며, 우리 시는 4대 원칙인 안전성, 공정성, 효율성, 임기내 착공 등의 원칙을 지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답론은 보편적 복지이다. 특정 계층,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철도 2호선이 대다수의 시민들은 물론 교통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통 복지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社說

이 총리의 군공항 이전 언급 귀 기울일 만하다

이낙연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들과 합동인터뷰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견해를 쏟아냈다. 이 총리는 광주 전남언론포럼 주관으로 그제 열린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조울과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우리는 이 총리의 이번 발언이 대단히 의미 있다는 판단이며 광주·전남 상생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이 총리의 발언 중 주목을 끄는 것은 단연 광주·전남 최대 현안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다.

그는 이에 대해 “지자체 지도자와 주민들의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도 수원 군공항과 대구 통합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가 발표됐으나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여전히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군 공항이 주민들의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현실적으로 광주 군공항이 이전한다면 전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전남 지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인

셈이다. 실제로 전남도의회는 과거 군공항 등 군사시설 이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리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수원·광주 공항 세 곳이 문제로 돼 있고 한쪽만 예외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전을 결정하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진척이 안 된다”고 이전 후보지의 ‘열린 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민간공항과 함께 옮겨가는 대구 군공항의 경우 ‘경북 의성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려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전남 도지사를 지낸 바 있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군 공항의 전남 지역 이전 필요성을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이 총리의 발언이 귀 기울일 만하다고 판단한다. 전남도 역시 이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있을 지원책과 그 뒤에 올 경제적인 이익·손해를 균형 있게 판단해서 광주·전남 상생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여전한 기상화폐 광풍…시장 혼란 없도록

정부의 ‘거래소 폐지 검토’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기상화폐 광풍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기상화폐에 대해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는 모양새이다. 더욱이 규제 방안을 놓고도 부처나 고위 관계자 간 엇박자를 보이는가 하면 정책이 여론 향방을 좇아 갈지자 행보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마저 사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6월 최고가 2661만 6000원을 기록했으나 열흘 만에 장중 1151만 원까지 떨어졌다. 18일 오후 현재 1400만 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최고가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국제시세도 1만 달러 아래로 추락, 최근 50% 정도 급락했다. 이밖에 다른 대부분의 기상화폐도 폭락을 보이자 정부를 원망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기상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투자에 따른 책임은 개인의 몫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상화폐의 거품을 키운 것은 정부의 이해 부족과 능감 대처가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가 300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책임으로 모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책임 회피이다.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갑구지 식 발언만 할 게 아니라 과열된 시장을 차분히 식힐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달 말 도입할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와 같이 기상화폐 투자자들을 제도권 시스템으로 끌어안는 정책도 추가 개발해야 한다. 이미 기상화폐의 거래나 시장을 단기간에 차단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차라리 양성화해 거품과 투기성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일 양국의 미묘한 관계를 반영하듯 외교적 수사에는 어김없이 난해한 표현이 등장한다. 최근 외교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가 지목한 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말도 그렇다. 한·일 발표문에는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가역적’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물체의 상태가 한 번 바뀐 다음 다시 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다. 외교부 테스크포스 조사 결과 한국이 먼저 썼

기에 대한 일본의 영혼 없는 사과를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한다. 대표적인 상용 문구로는 ‘불행했던 역사, 과거사’로, 사과의 주체인 가해자가 생략된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이다.

일본의 국적이 이 같은도니 국민도 물먹이지 것일가.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A(69)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 국립 방향의 동산에 있던 ‘사도비’ 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비석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

속 기소됐다. 위안부 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 씨가 1983년 개인적인 참회의 뜻으로 세운 사죄 비석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동기였다.

일본이 만행의 주범이고 가해자라는 사실은 ‘불가역적’인 역사다.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는 일본이 양심적 후진국이라는 지적도 불가역적이다. 아무래도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봉기 영웅 기념비’에 무릎 꿇고 유대인 학살을 사과한 브란트 총리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듯싶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불가역적인 역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경제부 220-0663 (FAX 222-4918)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정지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227-9500) (FAX 02-773-9331)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